

기독교인이 말하는 간호의 의미

윤미선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간호학과)

간호의 목적은 인간의 삶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는데 있으며, 특히 기독교 간호사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은 삶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중요한 실천방안이다. 이에 본 연구목적은 1)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기독교적인 간호사의 자질은 무엇인가? 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 방법인 인터뷰 및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기독교 대학의 목사안수를 받거나 세례 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기독교 대학 교수 총 8명을 인터뷰 하였으며, 녹음한 내용은 즉시 필사 한 후 한줄 한줄 읽으며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는 1) 치유(치유의 하나님, 치유는 육체와 정서, 영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함, 치유는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짐, 치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룸)와 2)일반적인 간호와 돌봄의 의미(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위기이고 힘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사람들, 일반적인 돌봄은 육체적인 돌봄) 3)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와 돌봄의 의미(육체와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아 주는 전인간호 즉 육체적 상처 돌봄, 마음과 심리적 돌봄, 관계의 회복, 영혼 치유)로 나타났다. 4)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할 자질은 소명의식, 하나님나라 비전, 영적 강함, 덕성과 인격적 성숙, 대상자에 대한 사랑, 대상자를 존엄하게 여김, 대상자를 긍휼히 여김과 영혼구원, 대상자를 이해함과, 진심으로 교감함, 간호사에 대한 신뢰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친절, 자긍심, 윤리의식, 자기관리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독교인이 말하는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와 기독교적인 간호사의 자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기독교대학 간호학생들과 기독교간호사들이 기독교적 신앙에 기초한 간호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제시어: 기독교, 간호, 간호의 의미, 기독교간호사의 자질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는 대상자인 인간을 전인적인 인격체로 정의하고 있으며(Steaven D., E., 2001), 간호는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며(American Nurse Association, 1980), 간호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간호의 근본이념을 실천하는 것으로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는데 있다(Nightingale F. 1859). 간호의 역사는 기독교의 시작과 더불어 이어져 왔으며(Patricia Donahue, 1985), 간호대상자인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의 전체로서 여겨지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함을 나타내고 있다(Piper J, 2009).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사명은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기독교적인 삶을 이루는 핵심적인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상실당한 자들을 치유자의 자격으로서 돌보는 것은, 기독교적인 선행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된다(조용기, 2009).

또한, 성경에서 간호는 전인에 대한 동정적인 사역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 목적은 죽음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적의 건강(shalom)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현대적 개념의 간호를 시도한 나이팅게일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며 자신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으며,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 등은 환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준 인격체로 대했으며, 건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총체적 개념으로 보았다(Shelly J, Miller, 2006).

이러한 간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에 대해 베너(Patricia Benner, 1994)는 ‘간호사의 역할은 정상 또는 병리학적인 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 성장과 발달에 있어 활기 있는 사회적 교류와 숙련된 신체가 되도록 돕고 더 나아가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으며, 국제간호협의회(1991)는 “간호사의 독특한 기능은 병들거나 건강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건강이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대상자의 행위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간호사의 역할은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으로 이해하며 인간의 신체를 살아있는 통합체이며 ‘성령의 전’(고전 3:16)으로 보며, 간호의 독특성은 전인을 포함한 간호를 하는데 있으며 간호는 예술이자 과학이라고 하였다(Shelly J. Miller B., 2006).

그러므로, 기독교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인 인간이 신체, 정신, 영적으로 온전한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 할 수 있도록 간호지식과 중재기술의 적용과 더불어 영적인 간호를 시도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간호과학에서 질적인 간호를 실천함은 물론 기독교적인 간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치유와 돌봄을 수행하는 것은 기독교 간호사로서 삶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다양한 의미와 기독교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파악해봄으로써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마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다양한 의미와 기독교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는 무엇인가?
- 2) 기독교적인 간호사의 자질은 무엇인가?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적연구 방법인 인터뷰 및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와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인터뷰 대상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목회경험이 있는 기독교학부 교수와 세례 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기독교 대학 교수로 선정하여 총 8명이 인터뷰하였다. 8명의 연령은 40-50대이며 모두 남자교수였다. 대상자에게 인터뷰 목적과 내용, 익명성 보장과 인터뷰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이후 모두 폐기처분 할 것이며, 연구과정 중 언제라도 참여철회가 가능함을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기독교적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와 기독교적인 간호사에 대한 의미를 자유롭게 심층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개방화된 질문지를 미리 이메일로 보내어 연구질문에 대하여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 편한 시간에 주로 연구실에서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는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질문내용은 “간호를 한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오면서 간호를 받은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간호사의 자질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호를 성경에서 표현한 부분이 생각나신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등이었고, 인터뷰는 1회당 30분-90분이 소요되었다. 내용은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여 즉시 필사하였다.

내용분석은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 실시하였다. 필사한 내용을 한줄 한줄 읽으며 의미에 따라 단락을 나누고, 소단락의 의미를 기록한 후, 소분류 단락을 연구문제에 따라 다시 간호와 간호사 자질에 대한 내용별로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다.

II. 본 론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와 기독교 간호사가 갖추어야할 자질의 내용으로 분류되었으며, [표 1]와 같이 각각의 대분류 내용은 구체적인 중분류 내용으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구체적 인터뷰 분석 내용은 다음에 기술하였다.

<표1>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와 기독교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대분류	중분류
치유	치유의 하나님 치유는 육체와 정서, 영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함 치유는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짐 치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룸.
일반적인 간호와 돌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위기이고 힘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사람들 일반적인 돌봄은 육체적인 돌봄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와 돌봄	육체와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아 주는 전인간호 -육체적 상처 돌봄 -마음과 심리적 돌봄 -관계의 회복 -영혼 치유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사의 자질	소명의식/ 하나님나라 비전 영적 강함/ 덕성, 인격적 성숙 대상자에 대한 사랑 / 대상자를 존엄하게 여김 대상자를 긍휼히 여김, 영혼구원 / 대상자를 이해함, 진심으로 교감함 간호사에 대한 신뢰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 친절 자긍심 / 윤리의식/ 자기관리

1.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

기독교인이 말하는 간호의 의미에 대한 분석결과,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간호’ 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며, 공통적으로 ‘치유’와 ‘돌봄’에 대한 의미를 간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표현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간호와 돌봄의 의미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와 돌봄은 의미를 분명히 구분하여 내용을 표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독교인이 말하는 치유의 의미

기독교인이 말하는 치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치유와 건강을 원하시며 치유의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되는 것이며, 질병을 치유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것을 치유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되고 영혼의 회복도 하나님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

지도록 한다. 치유는 육체와 정서, 영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치유는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독교에서의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영혼의 회복을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세요 여호와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라 그리고 건강의 복은 순종할 때 건강의 복이 온다 일반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도 건강을 원하세요 (면담자B)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치료자다 라는거 ‘여호와라파’. 인간을 지으신것도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간호 돌봄 치유 이런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전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파다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안아주리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 상처난 부위 이런 것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감싸주신다 내 안에 거하게 한다 내 품안에 거하게 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런 것들은 가장 큰 돌봄 아닐까 그런 것으로 모든 병들이 근원적으로 치료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거고. (면담자F)

기독교적 인간관과 세계관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치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면담자F)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신거죠 엘리사를 통해서...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이방땅에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육신의 질병그 한센병을 고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의 도구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말를 비롯해서.(면담자G)

치유를 생각할 때 환자나 돌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육체적인 부분도 물론이 치유가 가능해야 되겠지만 정서적이나 이런 영적인 부분들도 같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면담자D)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만 회복할 뿐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일도 있고, 질병을 치유할 때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것을 치유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되고...영혼의 회복도 하나님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게 기독교 치유다 (면담자G)

2) 기독교인이 말하는 일반적인 돌봄과 간호의 의미

성경에는 간호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care, 돌봄이라는 표현을 통해 간호의 의미를 헤아려볼 수 있으며, 기독교인이 말하는 일반적인 돌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돌봄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건강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시간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며, 위기이고 힘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며, 일반적인 돌봄은 육체적인 돌봄이며 부모가 자식을 돌보거나 목자가 성도를 잘 돌보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성경이 말하는 간호라는 말을 제가 뭐라고 하면 제일 가까울까 care라는 말이 가까울까요? 성경에 케어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서로 케어하라 이거는 병든 자 뿐만 아니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돌보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돌보라, 또 성도들 끼리 서로 돌보라, 장로님들은 성도들 양무리를 잘 돌보라,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일반적인 돌봄에 대한 얘기구요 (면담자B)

일반적인 돌봄은 그저 이렇게 말 그대로 돌봄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육체적인 돌봄에서 끝나는 것이겠죠 (면담자F)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사랑하게 될 사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나의 돌봄 나의 어떤 그 행동 선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이 누군가 가리켜 준 거예요 우리의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장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지금 위기를 만난 사람들 건강이 위기던 돈의 위기던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 시간 내 물질.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면담자C)

일반적인 간호는 계획하에 수행되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간호행위이며, 투약하고 검사하고 처치하는 등 간호대상자를 일로 대하고 공감과 배려의 마음자세가 없는 간호라고 나타났다.

일반 병원에서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무슨 말한 마디라도 환자의 고통이나 불안이나 이런데 공감하고 생각해 주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 자세가 훈련이 잘 안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약 투여하고 검사 뭐 이런 것만 자신들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적인 간호, 성경적인 의미의 간호는 아닌거 같아요. (면담자G)

3) 기독교인이 말하는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

기독교인이 말하는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아 주는 전인간호로써, 육체적 상처 돌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심리적 돌봄을 통한 마음의 평안과 관계의 회복이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육체와 마음의 질병치유는 물론이고 더불어 복음전도를 통한 영혼의 치유까지가 진정한 신앙에 기초한 간호라고 표현하였다.

인터뷰 분석 내용은 전인간호, 육체적 상처 돌봄, 마음과 심리적 돌봄, 관계의 회복, 영혼 치유 순서로 기술하였다.

육체와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아 주는 전인간호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와 돌봄의 의미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아 주는 전인간호라고 표현되었다. 협의의 간호는 아픈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주로 돌보는 것이라 하겠으나, 기독교적인 전인간호는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는 간호 즉 환자와 그 외 소속된 것들을 더 상당히 광범위하게 돌봐줄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간호사들도 기본적인 건 다 해 주시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돌보려는 자세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

하는 거는 기독교적인 전인치료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는 그러한 치유, 간호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면담자G)

치유가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환자와 그 외 소속된 것들을 더 상당히 광범위하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거 같아요 (면담자A)

육체적 상처 돌봄

간호란 말을 사용할때는 아픈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주로 돌보는 것을 말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면담자B)
육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질병에서 빨리 회복될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할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조력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면담자B)

마음과 심리적 돌봄

진정한 간호로서의 돌봄은 마음이 상처까지 치료하여 영육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간호와 돌봄이며, 환자의 몸의 아픔을 내 몸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돌보아주는 이 자체가 ‘간호의 관점’이며 진정한 돌봄이라고 표현하였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도 중요한 요소 아니겠나 전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중에 무엇보다 마음으로 하는 이 케어가 정말 중요한게 아닌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환자의 몸의 아픔을 내 몸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돌보아주는 이 자체가 ‘간호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면담자B)

삼고대 하는 간호사들이 그 많은 환자들에게 속에서 우러나는 말은 아닐지라도 짹짹하게 웃으면서 쩡그리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돌봄이 아니냐 뭐 아무리 상처를 치료하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한다 그래도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가 안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간호로서의 돌봄은 영육간 사람을 살리는게 진정한 간호의 돌봄이다 (면담자F)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고 (면담자B)

관계의 회복

성경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혈류병 여인의 치유사역을 통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와 모든 관계를 잘 다독여서 완성시켜 줌으로서 그가 앞으로 살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치유와 돌봄으로 보았으며, 치유와 돌봄은 서로 어우러지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날때부터 소경된자 예수님께서 계속 만나 주시면서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나 하면서 치료받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영적인 관계와 모든 관계를 잘 다독여서 완성시켜 주시거든요 그런거는 간호가 되는거 같아요 (면담자A)

예수님의 시기에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자해서 그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여자를 ‘여자가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꼭 한사람 한사람이라도 그가 앞으로 살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 성경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거죠 (면담자F)

영혼치유

육체치유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간호의 기독교적 입장이라고 하였다.

육체도 구원하지만 영혼도 구원하는 거 영육간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겠느냐 돌봄, 왜 돌봐 주느냐 그냥 상처를 치료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육체적인 상처와 마음의 평안까지도 더해서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돌봄, 간호의 기독교적 입장이 아닌가 (면담자F)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죽은자 살리는 것 만큼 위대한 간호가 어디 있겠습니까(면담자B)

2. 기독교 간호사가 갖추어야할 자질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할 자질은 소명의식, 하나님나라 비전, 영적 강함, 덕성과 인격적 성숙, 대상자에 대한 사랑, 대상자를 존엄하게 여김, 대상자를 긍휼히 여김과 영혼 구원, 대상자를 이해함과, 진심으로 교감함, 간호사에 대한 신뢰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친절, 자긍심, 윤리의식, 자기관리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명의식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할 자질은 소명의식으로 나타났다. 간호는 소명이며 하나님의 일이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므로, 질병상태의 인간을 창조하신 건강상태로 되돌리는 간호행위 자체가 하나님일이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단순히 job이라고 보지 않고 소명colling으로 이해하며, 간호사는 일반적인 일, 직업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간호사로 부르셨을까 고민하며 수행해야 하는, 타고난 품성이 요구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기독교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단순히 job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colling이라고 보고 이는 하나님의 소명이란 말이예요 하나님이 70억 인구되는 사람 중에 그 많은 전문적인 직업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간호사로 부르셨을까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예요(면담자F)

이거 중요한 건데 간호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신학에서는 '하나님 원래 세상이 완전했는데 죄를 지어 가지고 깨졌잖아요 그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려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모든 것들이 망가졌는데 그것을 원래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로 돌리려는 그러니까 의사가 질병이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간호사님들이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일하고... 신앙이 있는 간호사라면 사람들을 꼭 전도하는게 아니더라도 간호자체가 하나님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애들한테 말씀해 주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너희 일 자체가 하나님 일이다.(면담자A)

간호사라는 직업은 타고난 그런 게 있지 않으면 못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의 품성을 길러준다는 것은 이전에 있는 거를 잘 복돋아 준다는 거고...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 여기 올 테니까(면담자B)

2) 하나님 나라 비전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할 두 번째 자질은 간호업무 속에서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갖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전도와 양육을 겸비하여 영혼을 구하는 가이드가 되어야한다고 나타났다.

기독교적 간호사가 되려면 구원의 열망이 있어야된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고, 진짜 기독교적 간호사는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니깐 구원에 가이드가 되는 걸로...(면담자F)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데 영혼구원에 대한 관점입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전도 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살아난 영혼을 양육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면담자B)

3) 영적 강함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할 자질은 영적 강함이며 이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믿음이라고 나타났다.

영적으로 강해야 겠지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고 자기부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 믿음의 자세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영적인 믿음이 중요한 자격이 되겠지요 (면담자B)

4) 덕성, 인격적 성숙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할 자질은 덕성이며, 의로운 마음의 동기, 치유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

인격적인 면을 생각할 때 덕성의 문제입니다. 말한 마디 잘못했을 때 얼마나 상처를 줄수 있어요 말한 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아파 죽어 가는 사람도 살려 놓는 그런 치유하는 마음을 줄수 있잖아요 (면담자B)

마음 속에 의로움, 정말 마음의 동기에 의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 참 중요하겠지요 또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섬김의 정신, 헌신된 자세, 이런 것들이 제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인격의 요소라는 것과 통합니다 (면담자B)

5) 대상자에 대한 사랑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할 자질은 대상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대표되며, 사랑의 사람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간호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나타났다.

성경을 얘기하면 한마디로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사랑의 주님 이거보다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의 인간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사랑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될 분들은 먼저 내가 간호사니까 사랑을 해야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사랑의 사람들이 간호사가 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면담자F)

간호학은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와야 한다 성적 때문에 왔거나 또 돈이나 명예 때문에 왔으면 지금이라도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기왕이면 사람을 좋아 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면담자D)

간호를 한 단어로 딱 표현한다고 하면 전 사랑이 아니냐 사랑이 없이는 간호할 수가 없지 않느냐 (면담자F)

6) 대상자를 존엄하게 여김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할 자질은 인간을 존엄하게 여김 즉,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다 귀하다는 마음, 간호대상자인 인간을 인간답게 존엄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공부하는 학생들이 병원 현장에 한번 실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한번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공학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예를 들어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사람 처음에 이것 하려면 얼마나 냄새 나고 짜증 나겠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한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이 사람은 내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 환자에게 있어서 뭐냐 이런 마음이 점점 들고 열 번 스무번 하다 보면 아 인간이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는 거,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귀하다 (면담자F)

인간의 존엄이란 말을 쓰는 거 자체가 요즘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되버렸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간호사나 의사들이 어떤 환자라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 지극 정성으로 돌봐 주고... 지극 정성으로 돌보는, 누가 다쳤던지 가리지 않고 (면담자D)

7) 대상자를 공홀히 여김, 영혼구원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자질은 영혼구원을 위한 공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육적인 질병과 진정한 영혼의 치유를 통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 나타났다.

간호사라는 것은 첫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공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육을 치료하지만 동시에 친절함과 상냥함과 뜨거운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를 잘 돌봐 줌으로써 영혼의 상처까지 치료해 주는 그것이 저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주면 저는 그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보는 거죠 (면담자F)

의사와 간호사의 기본자세를 환자의 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돌보고 치유한다는 그런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교육해야만 한다 정말 환자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치유하면서 마음까지도 치유해줄 때 영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적 간호사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이상이 되어 되고...기본태도에서 크리스찬 간호사라면 내가 이분들의 영혼, 마음까지도 내가 책임을 맡았다 이런 자세를 안해요 학생때부터 가르쳐주고 몸에 배게 하는거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간호가 일반 간호는 도저히 못 따라오는 그런 경지가 아닌가 그리고 크리스찬 간호사를 선호하게 되고 환자들이 인정하고 그럴 때 우리 학교 같이 기독교대학의 간호학 학생들을 모든 사회나 의료계에서 인정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면담자G)

여기서 제가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꼭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 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고 꼭 이런 차원이 아니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으로 그 병든 환자를 내가 잘 사랑으로 그의 육적인 질병과 아울러서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 한사람이 되어서 아 죽음도 두려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은 아마 뜻이 있으시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도 병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자기 삶의 고백이 드러난다면 저는 분명히 그의 영혼까지도 진정한 구원에 이룰수 있는데 간호사들이 육적인 질병만 치유하고 무뚝뚝하고 와서 주사만 놓고 상처만 싸매고 무뚝뚝하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면담자F)

8) 대상자를 이해함, 진심으로 교감함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자질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진심을 담은 교감이며, 이는 대상자 입장에서 돌보고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도와 줄수 있는 것이며, 대상자 이해를 위해 간호사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독서를 권장하고 있다. 대상자 이해와 교감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이해하고 치료해 주려고 정말 애쓴다는 신뢰가 가도록 해주는 것이 기독교 간호사의 자질로 나타났다.

간호사님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환자들과 보호자들 그분들의 입장이 돼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분들의 필요를 모를 것이고 필요를 모른다면 도와 줄수 없을 것이고...그래서 정말 훌륭한 간호사님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 경험으로 환자들이나 이런분들 경험하기 힘들 것 같고 가장 경제적인 것이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환자뿐만 아니라 동료 간호사들 간호 조무사들 의사들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훨씬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면담자A)

간호사가 삼교대이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좋겠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저사람은 뭐가 필요할 것 같다 이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본다 이러면 좋은 돌봄이 될 것 같고 의사나 간호사들의 말만 마디가 낮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상대방 쪽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해주거나 돌봄이 가능하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간호사가 될수 있겠다 (면담자D)

그 사랑의 희생에 대해서 감격,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를 이해할 때 그 말이 많지 않아도 진실한 대화가 된다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말이 많이 없어도 신뢰감이 가게.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이해한다 정말 나를 치료해 주려고 정말 애쓰는 이런 환자들의 신뢰가 가도록 해주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일이 아닌가. 최선을 다하는거 그러니까 의료기술 만이 아니라 마음 자세도 그럴 때 그런 깊은 신뢰감이 생기지 않을까 (면담자G)

9) 간호사에 대한 신뢰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자질은 실력 갖춘 간호사이다. 이런 간호사는 지식적인 면에서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지혜, 명철, 총명, 지식, 분별력, 판단력, 신중함, 모략을 갖추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고 간호사로 나타났다.

지적인 면도 구비돼야 되겠지요 지적인 면은 이제 지혜, 명철, 총명, 지식, 분별력, 판단력, 신중함 또 모략, 모략은 주로 아이디어입니다 조인을 위해서 어떡하면 이 환자를 좋은 아이디어로 도와줄 수 있는가 지식적인 면에서도 많은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 지식과 아울러서 지혜롭게 케어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면담자B)

일차적인 건 테크니컬한 거 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격이 갖춰진 간호사 신앙이 훌륭한 간호사 사람을 사랑하는 간호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볼때 그건 이차구요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잠깐 와서 해주지마는 딱딱 파악해가지고서는 조치해주고 이런 간호사가 신뢰를 받을 거 같아요 또 그런 간호사가 한마디 할때에 사람들이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권위가 있고 간호사로서의...간호사님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좀 전문적인 지식 그걸 가지고서는 좀 코치해주고 이런 거 전문적 지식이 있으면서 나와 시간을 의사보다 더 많이 투자해 주면서 나를 돌보는 그런거 원하는거 같아요 맘이 든든하니까 (면담자A)

10) 친절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자질은 사랑에서 나오는 친절이다. 즉, 정확한 시간에 약을 준다거나 검사를 시행하고 설명해주고 환자 가족이나 환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등이 진정한 영의 치유와 사람을 살리는 진짜 기독교 간호사의 조건이라고 나타났다.

구원에 이르기전에 간호사들이 진정한 영의 치유는 친절. 좀 더 다정다감 이게 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안 나오잖아요그 사람이 그 얼굴이나 말투에서 무뚝뚝하게 나온다면 저는 그건 영혼이 치유될수 없다고 보는 거죠 상냥하게 웃으면서 냄새가 나도 간호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면담자D)

요즘은 버스 기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타면 금방 안 떠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타면 중심을 못 잡다 보니까 얼른 앉으세요 떠나겠습니다 저 그거 감동 받았단니까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간호사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영육을 치료하는 간호사니까... 그런면에서 사람들이 더 치유를 받는거죠 그러니까 더 친절한 병원으로 갈라구 하고...(면담자F)

급해서 벨을 눌렀을 때 빨리 와주는 거 그럴 땐 참 고맙지요 이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제때에 잘 챙겨주시는 거 약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그 시간 딱 맞게 해주시는 것이 기본적인지만 환자로써는 그게 불안해질수 있으니까 그게 고맙고, 그 다음에는 한 마디라도 환자 가족이나 환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런 거 참 고맙죠 (면담자G)

11) 자긍심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자질은 자긍심으로 간호사 스스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으로써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며 일 때 더 헌신하는 간호사가 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긍심 간호사님께 필요한건 자긍심 아! 우리가 소중한 사람으로써 대우를 받는구나 하면서 일 할 적에 더 헌신하면서 남보다 내가 낮아질수 있는 거거든요 너는 낮다 일하는 기계다 하면 그렇게 낮아지는 것은 굴욕당하는 거지 겸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긍심 그런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담자A)

12) 윤리의식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자질은 윤리로서 특히 의사와 환자와 의료진 간에 겸손하면서도 자기가 누리거나 지켜야 될 것은 지킬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나타났다.

간호사들 사이에서의 윤리...의사들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환자나 일반인들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조무사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그런 윤리적인 것 겸손하면서도 자기가 누리거나 지켜야 될 것은 지킬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그런 것들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잘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하기에 너무 업무도 스트레스고 대인 관계도 스트레스고 몸도 지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면담자A)

13) 자기관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자질은 지속적인 자신의 육신건강과 영혼 돌봄 등 자기관리, 즉 충분한 휴식, 충전을 즐김, 건강관리, 자신의 전인적인 돌봄과 자신의 영혼도 말씀과 상담과 치유과정을 통해서 늘 치유받으면서 환자들을 대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충분한 휴식, 나이트 근무 데이 근무 3교대로 하니까 시차를 바꿀 수 있는 휴식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즐기는 법 그런것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시간내에 충전할 수 있는...육신 적으로 또한가지 더 하자면 간호하는 분이 먼저 강건해야죠 내가 아프면 간호할수 있겠어요 육신적인 건강이 또 포함될수 있게죠 (면담자A)

우리들 의사와 간호사 들도 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거 같아요...진인치료는 더 해 줄 수 있는 의료인들은 자기들도 치료를 받아야된다는 거죠 먼저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남은 치료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힘들어 버리거나 폭발해 버린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신들도 진인치료를 받도록 . 전신의 건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을 마음을 돌봐서 내가 어떤 면에 문제가 있는가 내 마음에 무슨 소위 고통이나 상처나 슬픔이나 있는가를. 간호사와 의사들도 말씀과 상담과 치유과정을 통해서 늘 치유받으면서 환자들을 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면담자G)

III. 결론

간호의 목적은 인간의 삶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데 있으며, 특히 기독교 간호사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은 삶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중요한 실천방안이다. 이에 본 연구목적은 1)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기독교적인 간호사의 자질은 무엇인가? 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는 1) 치유(치유의 하나님, 치유는 육체와 정서, 영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함, 치유는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짐, 치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룸)와 2)일반적인 간호와 돌봄의 의미(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위기이고 힘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사람들, 일반적인 돌봄은 육체적인 돌봄) 3)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와 돌봄의 의미(육체와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아 주는 전인간호 즉 육체적 상처 돌봄, 마음과 심리적 돌봄, 관계의 회복, 영혼 치유)로 나타났다. 4)기독교인이 말하는 기독교 간호사가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자질은 소명의식, 하나님나라 비전, 영적 강함, 덕성과 인격적 성숙, 대상자에 대한 사랑, 대상자를 존엄하게 여김, 대상자를 긍휼히 여김과 영혼구원, 대상자를 이해함과, 진심으로 교감함, 간호사에 대한 신뢰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친절, 자긍심, 윤리의식, 자기관리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독교인이 말하는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와 기독교적인 간호사의 자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기독교대학 간호학생들과 기독교간호사들이 기독교적 신앙에 기초한 간호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Shelly J. A., Miller A. B. (2006). *Called to Care : A Christian Worldview for Nursing*.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USA.
- 조용기 (2009). 『우리의 치료자 예수』. 서울: 서울말씀사.
- American Nurse Association (1980)
- Piper J. (). *Desiring God*.
- 박대영 역 (2009) 『하나님을 기뻐하라』. 생명의 말씀사.
- Irena. M. & Jo. A. W. 저, 신경림 외 역(2001). 『질병체험연구』. 현문사.
- Nightingale F. (1859 . *Notes on Nursing*.
- 김조자·이명옥 역 (1997). 『나이팅게일 간호론』. 서울: 현문사.
- Steven D. E. (). *Philosophy of Nursing*.
- 공병혜·홍은영 역 (2001). 『돌봄과 치유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Osborn T. L. () *Biblical Healing*.
- 김진호 역(2008). 『성경적인 치유』. 서울: 믿음의 말씀사.

논평: 윤미선 교수의 ‘기독교인이 말하는 간호의 의미’

김병국 교수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윤미선 교수님의 본 논문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를 잘 밝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준 매우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순한 이론적 작업이 아니라 기독교 교역자들과의 실제적 면담에 근거하여 작성된 논문이기 때문에 그 설득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논문의 집필자가 기독교학문과 기독교세계관 일반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본 논문을 썼다는 것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자가 몸 담고 계신 백석대학교에서는 교수들을 위하여 ‘신앙과 학문 연구’라는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두 시간씩 10주 동안에 걸쳐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에 지원한 교수님들은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기독교세계관, 기독교학문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윤미선 교수님은 2010년 1학기에 제1과정, 그리고 2011년 1학기에 제2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연구자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 기독교세계관과 학문에 대한 지식을 잘 갖추신 상태에서 본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본 논문이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본 논문의 공헌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간호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본 논문은 간호사가 인간을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지닌 존재로 보았을 때 간호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영혼을 갖춘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다만 육체만을 지닌 존재로 보느냐 하는 것은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는 간호의 목표에 대한 것입니다. 본 논문은 간호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의료계가 점점 자본가들의 논리에 따라 상업화 되어가는 시기에, 간호의 고귀하고도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준 것은 본 논문의 큰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간호의 발전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본 논문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고 간호의 목표를 위와 같이 잡았을 때 그 일을 수행할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여러 역량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기독교대학의 간호학과에서 이 역량들에 주목하며 제자들을 양성한다면 한국 의료계가 크게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 본 논문의 약점

그러나 완벽한 논문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본 논문의 약점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연구자께서는 목사안수를 받거나 세례 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 온 기독교 대학 교수들

을 연구대상자 즉 면담자로 삼으셔서 본 논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학적 지식에는 탁월한 분들일지 몰라도 간호학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간호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간호사의 자질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하여 논문이 작성되었는데, 면담자들이 조금이라고 간호학에 대해 지식이 있는 자들이었다면 기독교신앙과 간호학을 연결시키려는 본 논문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간호학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선입견이 없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점도 있겠지만 간호학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간호학 전문가가 던지는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적 간호’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일반적 의료행위와 간호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에 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4. 총평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문에 대해 탄탄한 지식을 갖추신 연구자가 작성하신 본 논문은 기독교 간호학계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특히 미래의 간호사 후보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연구자에게 여력이 있으시다면 신학과 간호학 모두를 알고 있는 연구대상자군, 이를테면 간호사이면서 선교사이거나 혹은 목사 사모로 활동하는 분들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를 진행시켜 주신다면 그 역시 기독교 간호학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